

미국의 에밀리즈 리스트(EMILYs List)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권수현*

| 목차 |

1. 문제제기
2. 에밀리즈 리스트의 활동과 성과
 - 1) 에밀리즈 리스트의 설립과 성장
 - 2) 조직과 활동
 - 3) 정치자금 모금과 후원
 - 4) 성과: 수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3. 에밀리즈 리스트의 성공과 지속 요인
 - 1) 리더십
 - 2) 명확한 당파성과 강력한 정체성
 - 3)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선택
 - 4) 번들링(bundling): 티끌 모아 태산
4. 한국 젠더정치와 여성운동에 주는 함의

| 초록 |

이 논문은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정치단체인 에밀리즈 리스트(EMILYs List) 정치활동 위원회(PAC)의 활동을 살펴보고, 성공과 지속 요인을 분석한 후 한국의 여성정치 세력화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1984년에 설립된 에밀리즈 리스트는 민주당 소속으로 임신증지에 찬성하는 여성후보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과 세력화를 확대해 온 조직이다. 에밀리즈 리스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오랜 시간 동안 조직의 대표를 맡아 이끌어 왔던 말콤의 리더십, 민주당 소속이라는 명확한 당파성과 임신증지 찬성이라는 강한 정체성 추구, 당선 가능성이 높은 여성후보 선택, 후원자들의 소액 기부와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번들링(bundling) 자금모금 방식 활용

* 경상국립대학교 slowpanda@gnu.ac.kr

부족한 부분과 놓친 부분을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정치 제도와 문화에 있어 한국과 미국 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뿐 아니라 실질적 대표성 또한 보장할 수 있는 여성정치세력화 방식, 예를 들면, 특정 젠더의제를 지지·대표하는 여성/페미니스트를 정치인으로 육성하는 전문적인 교육·훈련 조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에밀리스 리스트, 리더십, 당파성, 정체성, 후원, 여성의 정치대표성과 정치세력화

1. 문제제기

민주화 이후 1990년대부터 한국 여성운동은 여성의원 수의 절대 부족이라는 현실에서 여성의원 수나 비율을 의미하는 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을 높이기 위해 한 축으로는 성별할당제 법제화를 추진했고, 다른 한 축으로는 여성들에게 정치참여를 권유하거나 지원하는 운동을 진행했다.

전자와 관련해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에 할당제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정당법에 명시되었고,¹⁾ 이후 몇 번의 관련 법 개정 과정을 거쳐 지역구 후보 30% 여성 공천(권고)과 비례대표 후보 50% 이상 여성 공천(의무)이라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계속 낮아지고,²⁾ 광역과 기초 의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전체 의석의 10%로 대표의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에 낮은 수

1) “정당은 비례대표 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정당법 제31조 제4항)

2) 민주화 이후 국회의 비례대표 비율은 계속 축소됐다. 13대에서 25.0%였던 비례대표 비율은 15대에서 15.4%까지 떨어졌고, 16대(16.8%)와 17대(18.7%)에 소폭 상승했다 18대 18.1%, 19대 18.0%, 20대 15.7%로 계속 줄었다(이진옥·황아란·권수현, 2017: 214). 현재 15.6%이다.

준이다.³⁾ 그리고 지역구 후보 30% 여성 공천은 정당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대표성 확대는 제한적이었다. 비례대표제와 결합한 할당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17대 총선에서만 제도적 효과가 존재했고(이진옥·황아란·권수현, 2017: 213), 이후 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했던 건 할당제 효과라기보다는 여성정치인 개인의 노력과 역량에 의한 측면이 크다.⁴⁾

법적 할당제가 지역구 후보 공천에 적용되지 않고, 여성대표성 확대에 대한 여성운동의 정치·사회적 압력이 약해지면서 여성의 정치 진입과 대표성 확대는 정당의 남성 기득권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리고 남성 정치의 “내재적 요구에 곧장 적응할 수 있는 하비투스”(푸워, 2017: 219-220)를 가진 소수 기득권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이는 젠더정책의 실종과 성평등 후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보다 여성의원 수가 증가했지만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로 바꾸는 형법 개정, 임신중단 약물 도입을 비롯한 안전한 임신중지 조치의 법제화,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 축소 등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젠더의제들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현실은 정당, 특히 거대정당의 여성공천이 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대체를 구성해 할당제 개혁과 여성후보 공천 확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일상적으로 진행했다. 예외적인 활동이 한 번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도 미국의 에밀리스 리스트(EMILYs List)와 유사한 활동이 진행된 적이 있다. 2003년 11월 6일,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후보 리스트를 만들고, 정당

3)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공직선거법 제22조 4항과 제23조 3항에 의해 지역구 의석수의 10%로 고정되어 있다.

4) 20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비율의 상승은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후보 당선자의 증가 때문이다(권수현·황아란, 2017).

들이 이들을 공천하도록 압박하는 활동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들이 모여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이하 '맑은넷'으로 표기)를 발족했다.⁵⁾ 맑은넷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여성후보를 추천받았고, "도덕성과 신망, 공익성, 전문성, 민주적 리더십, 양성평등의식 등을 기준으로 심사와 검증을 거쳐"(동아일보, 2004.01.08.) 2004년 1월 8일, 102명의 여성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이후 맑은넷은 각 정당에 여성후보 명단을 보내고 이들을 여성후보로 공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2004년 2월 10일에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를 발족해 여성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유권자 캠페인('맑은정치 희망지기 2004인 모여라!')을 진행했다.⁶⁾

맑은넷이 추천한 102명 중 46명(45.1%)이 공천을 받았고, 46명 중 15명은 지역구 공천을, 31명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김은경, 2010: 116). 17대 총선에 출마한 전체 여성후보(156명) 중 29.5%가 맑은넷 추천 후보였다.⁷⁾ 이는 맑은넷의 여성후보 리스트 작성 활동이 거대정당 여성 공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성후보

5) 발족식에는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 이미경 전 의원 등 40여 명의 여성계 인사들이 참석했다(안희·이윤영, 2003). 맑은넷은 발족 선언문에서 "우리 정치가 수십 년 동안 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 때문"이라며 "여성이 정치의 주체로 참여해 정치개혁을 진전시키고 맑은 정치의 새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국회의원 273명 중 여성은 16명으로 5.9%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를 3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여성 100인 국회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2003).

6)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총선여성연대 산하 322개 단체,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위원 약 80여 명, 한국여성재단 등 범여성계가 연합한 조직이며, 17대 총선까지 한국여성재단의 특별기구로 운영됐다(김혜림, 2004). 600여 명이 기부한 약 2,000만 원의 성금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박이은경, 2004: 304).

7) 지역구 15명 중 3명, 비례대표 31명 중 19명, 총 22명(47.8%)이 당선되었다(김은경, 2010: 117). 전체 여성후보자 156명 중 당선자 비율(25%, 총 39명, 지역구 10명, 비례대표 29명)보다 맑은넷 후보자 중 당선자 비율(47.8%)이 더 높았다(김은경, 2005; 김은경, 2010: 117에서 재인용).

공천을 확대했고, 이를 통해 의회에 진입한 여성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김은경, 2010) 맑은넷 활동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여성운동 안팎으로 논란과 비판이 있었고, 정치적 환경도 변화하면서 한 번의 활동으로 종료되었다.

반면, 미국의 에밀리즈 리스트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현재는 미국 정치의 여성대표성 확대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정치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성별할당제라는 법적 기반도 정당 내 규율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 정치의 여성대표성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데는 에밀리즈 리스트와 같이 여성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와 이에 동참하는 수많은 여성시민의 힘이 모여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제도가 한국과 다르나 현재의 정치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반페미니즘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었)고,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국회와 정당이 존재하고, 지역구 후보공천 성별할당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할 가능성이 낮고, 여성단체들의 초당적 연대나 연합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 정치대표성과 정치세력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에밀리즈 리스트의 활동은 점검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한국에서 에밀리즈 리스트는 여러 번 회자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소개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다. 미국에서도 에밀리즈 리스트와 관련한 기사는 많으나 학술적 연구는 많지 않다(Cooperman, 2010; Day and Hadley, 2002; Gaunder, 2011; Hannagan, Pimlott, and Littvay, 2010; Hoagland, 2011). 따라서 이 연구는 에밀리즈 리스트와 관련한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기보다는 기존 연구성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에밀리즈 리스트가 미국 정치의 여성대표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것이 한국 정치의 여성 대표성과 세력화에 주는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에밀리즈 리스트의 활동과 성과

1) 에밀리즈 리스트의 설립과 성장

베테랑 활동가이자 기금 모금자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확보하고 있던 앨런 말콤(Ellen R. Malcolm, 1947~)은 1983년 겨울, 의회(상원)에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여성의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이에 말콤은 여성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성후보에 대한 신뢰와 자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치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몇몇 동료들과 논의해 “초기 자금은 이스트와 같고, 그것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게 한다(Early Money is Like Yeast, it makes the dough rise)”는 의미를 담아 에밀리즈 리스트(EMILYs List)를 만들었고, 1984년 12월에 정치활동위원회(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로 등록했다.⁸⁾

새로운 정치전략이란 에밀리즈 리스트가 추천하는 여성후보들의 당선을 위한 후원자 네트워크(donor network)를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money)이고, 여성은 후원받는 것도 후원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Malcolm, 2017: 23). 이를 위해 에밀리즈 리스트는 후원자들이 지지·지원하고자 하는 여성후보의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말콤은 과거의 여성조직이 약화된 요인이 그들의 초당파적인(bipartisanship) 태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당파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여성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초당파적인 태도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태도로 보일 수 있으나 정당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른 상황에서 모든 정당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그것을 정당에 요구하기도 어려우며, 여성 후원자들

8) 정치활동위원회는 결성된 후 10일 이내에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 Federal Election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하며, 분기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OpenSecrets, 2024).

의 결집력을 끌어내고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지원하는 여성후보는 반드시 민주당 소속 후보여야 한다는 조건을 세웠다. 또 다른 조건은 임신중지(pro-choice)에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이유가 여성의 이해(women's interest)를 대표하는 것인 만큼, 에밀리즈 리스트는 임신중지 찬성 입장을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는 여성후보이자 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조건으로 설정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 후보는 에밀리즈 리스트로부터 지지·지원을 받을 수 없다.

1986년 중간선거 때 에밀리즈 리스트는 처음으로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지원하는 후보로 해리엇 우드(Harriett Woods)와 바바라 미컬스키(Barbara Mikulski)를 선정했다. 이 중 한 명인 미컬스키가 메릴랜드(Maryland) 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에밀리즈 리스트를 만든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한 미컬스키는 1971년에 볼티모어 시의원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했고, 1976년에 하원의원이 되었고, 1986년부터 2016년까지 상원으로 활동한, 최장수 의원이자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활동한 두 번째 여성이다(United State Senate, 2023).⁹⁾

에밀리즈 리스트가 전국적인 조직으로 인식된 계기는 1992년, 전국 방송인 CBS의 60분(60 Minutes)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부터이다. 에밀리즈 리스트가 〈60분〉 제작진으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게 된 데는 199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대법관 후보인 클래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 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사람은 당시 오클라호마 법대 교수였던 아니타 힐(Anita Hill)이었고, 그녀는 토마스 후보자가 과거 직장에서 자신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많은 미국 여성, 특히 일하는 여성들이 충격과 분노

9) 바바라 미컬스키는 미국 의회에 바지혁명(pantsuit rebellion)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여성의원인 상원 건물에서 바지를 입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처음으로 바지를 입고 등원했다.

를 느꼈고, 아니타 힐을 방어해 줄 여성의원을 찾았다. 그러나 그때 상원에 여성의원은 두 명뿐이었다. 민주당 소속 유일한 여성의원이었던 미켈 스키 의원은 상원에서의 임명 표결 연기를 요청했고, 하원에 있던 7명의 민주당 여성의원은 상원을 찾아가 청문회를 다시 열 것을 요구했다(Malcolm, 2017: 139). 정치적 압력에 상원 사법위원회 청문회가 다시 열리게 되었으나 증인으로 참석했던 힐은 남성의원들로부터 모욕적이고 부당한 질문과 비난을 받았고, 이후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100명 중 52명)으로 토마스 후보는 연방대법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회에 여성을 대표할 여성의원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여성들이 에밀리즈 리스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후원금을 내기 시작했고, 전국 방송인 〈60분〉에 에밀리즈 리스트가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후원자 규모가 이전보다 6배 이상 증가했고, 1,0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회원수는 약 23,000명이 되었다(EMILYs List, 2024a). 현재 약 500만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에밀리즈 리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금하는 여성정치활동위원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Stolberg, 2018; Stuart, 2025).

2) 조직과 활동

에밀리즈 리스트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중앙조직은 두 개인데 하나는 에밀리즈 리스트 후보를 선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이며, 다른 하나는 에밀리즈 리스트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시니어 리더십 팀(Senior Leadership Team)이다(EMILYs List, 2024b). (2025년 2월 기준) 사업가이자 독지가인 레베카 해일리(Rebecca Haile)가 이사회 의장을, 내과의사이자 자선사업가이자 정치활동가인 카를라 주르베슨(Karla Jurvetson)이 부의장을 맡고 있고, 말콤은 명예의장이다. 이들을 포함해 총 17명이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 시니어 리더십 팀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비서실장(Chief of Staff), 재무최고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수석행정관(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Women Vote의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 of Women Vote)가 있고, 5명의 임시 부대표가 연방과 주지사 선거 캠페인(Federal and Gubernatorial Campaigns), 주와 지방 선거 캠페인(State and Local Campaigns), 의사소통과 콘텐츠(Communication and Content), 개발(Development), 디지털(Digital) 영역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대표는 제시카 맥클러(Jessica Mackler)이다.¹⁰⁾ 맥클러는 에밀리즈 리스트의 네 번째 대표이다. 말콤이 초기부터 25년 동안 대표직을 수행했고, 스테파니 쉬리옥(Stephanie Schriock)이 두 번째 대표로 2010년부터 11년 동안 에밀리즈 리스트를 이끌었다.¹¹⁾ 2011년에 세 번째 대표로 라폰자 버틀러(Laphonza Butler)가 임명되었는데 그녀는 첫 번째 유색 여성이자 엄마인 대표였다. 2023년 10월 1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었던 민주당 다이앤 페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버틀러를 지명함으로써 그녀는 첫 LGBT 흑인 상원의원이 되었다(Wikipedia, 2025). 이

10) 에밀리즈 리스트 홈페이지에서는 그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EMILYs List, 2024b). 그녀는 20년 동안 민주당 관련 정치활동을 해온 베테랑 정치전략가로 에밀리즈 리스트에서 정치분석 인턴으로 정치경력을 시작했고, 스태프로 활동하며 정치경력을 쌓았다. 10년 정도 에밀리즈 리스트에서 일한 후에 아메리칸 브리지 21세기(American Bridge 21st Century)의 대표가 되어 민주당의회선거위원회(DCCC: Democratic Congressional Campaign Committee)와 민주당주지사연합(DGA: Democratic Governors Association)을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운영했다. 폴리티코 플레이북(Politico Playbook)은 2018년에 맥클러를 ‘주목해야 할 여성 목록(Women to Watch Power List)’에 선정하면서 “민주당 정치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면서 정치적 능력을 갈고 닦았다”고 밝혔다. 2021년에 다시 에밀리즈 리스트로 돌아왔고,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여성후보의 승리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버틀러의 후임이 되었다.

11) 그녀가 대표로 있는 동안 에밀리즈 리스트는 46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1,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당선되었고, 14,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정치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조직을 확장했고, 정치인 영입과 선거운동 훈련을 위한 조직, Run to Win을 만들었다(EMILYs List, 2024b).

로 인해 에밀리즈 리스트의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맥클러가 임시 대표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에밀리즈 리스트는 반인종주의(Anti-racism),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조직의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EMILYs List, 2024c). 에밀리즈 리스트가 자체 조사한 직원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86%, 남성이 12%, 비양성애/제3젠더가 3%이다. 성적 지향의 경우, 이성애자가 72%이며, LGBTQ+가 28%이다. 인종의 경우, 백인이 56%이고, 비백인이 44%이며, 비백인 중 라틴계가 25%, 아시안계가 25%, 흑인이 33%, 다인종이 17%이다. 이사회는 경우, 인종적으로 백인이 50%, 비백인이 50%이며, 비백인 중 흑인이 63%, 아시안계가 25%, 라틴계가 13%이다. 성적 지향의 경우, 87%가 이성애자이며, 13%가 LGBTQ+이다(EMILYs List, 2024c).

에밀리즈 리스트의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후보를 영입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교육과 제도적 지원은 여성들이 후보 출마를 결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에밀리즈 리스트는 1994년부터 훈련센터(training center)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둘째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캠페인을 조직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자금모금가와 선거운동원에 대한 훈련도 진행한다. 셋째는 여성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젠더의제 연구는 산하기관인 에밀리즈 리스트 액션(EMILYs List Action, 이전에는 American Women)에서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은 유권자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독립적인 조직으로 'Women Vote'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에밀리즈 리스트는 정치기회프로그램(POP: Political Opportunity Program)을 통해 주(state)와 지역(local) 수준에서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여성들의 참여를 북돋는 활동과 출마를 결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훈련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초반까지 3,200여 명의 여성을 훈련시켰고, 29개 주에서 217명의 선거운동을 도왔다(Conniff, 2005: 18).

모두가 대선에 집중했던 2004년에 에밀리즈 리스트는 2군팀(farm team)을 만드는 데 주력했고, 5개 주를 공화당 우세에서 민주당 우세로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민주당 존 케리 대선팀이 가망이 없는 주로 판단하고 빠져나온 곳(콜로라도)에 에밀리즈 리스트는 13명 여성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했고 13명 모두 승리해 콜로라도주의 하원과 상원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었다(Conniff, 2005: 18).

후원 조직으로 에밀리즈 리스트는 다수위원회(Majority Council)를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에밀리즈 리스트에 1,200달러 이상(한화로 약 170만 원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구성원이 되면, 에밀리즈 리스트와 관련된 소식뿐 아니라 에밀리즈 리스트의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정보나 후보 지원을 위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에밀리즈 리스트가 주최하는 행사들(We Are EMILY National Gala, Regional Conferences, Virtual Political Briefings, House Parties, Candidate Events, Annual Majority Council Virtual Gathering)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지역에서 후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때 조직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정치자금 모금과 후원

미국 선거는 합법적인 돈 선거라고 할 만큼 많은 돈을 사용한다(유혜영, 2016).¹²⁾ 199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치러진 5차례의 중간선거(midterm)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있었던 4차례 총선거(general election)에서 선거자금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최재동, 2022: 40), 2020년 미국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 800명 후보자의 선거자금 평균 모금액은 2,121,075달러(한화로 약 30억)였다(최재동, 2022: 45).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으면 정치를 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저임금을

12) 하지만 선거에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에 쓰는 돈은 전체 미국 정치자금의 일부에 불과하다(유혜영, 2016).

받고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 남성보다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고 있고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남성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에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거자금을 모으는 데 남성보다 더 큰 장벽이 있다”(Levac, 2018).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 자금 모금 능력을 중요하게 본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 정치는 특정 후보들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정치활동위원회(PAC)를 만들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³⁾ 정치행동위원회는 개인, 정당위원회 또는 다른 정치활동위원회로부터 매년 5,000달러를 기부받을 수 있고, 이렇게 모은 돈은 특정 후보나 캠페인 또는 정당 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다. 대상에 따라 기부 액수가 다른데 후보에게는 선거 때마다 5,000달러를, 정당에는 매년 15,000달러를, 다른 정치활동위원회에는 매년 5,000달러를 기부할 수 있다.¹⁴⁾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정치행동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정치행동위원회는 기업이나 노동조합 또는 특별한 정치적 이해를 대표한다(OpenSecrets, 2024a). 에밀리즈 리스트는 여성 이슈(women's issue)를 다루는 정치활동위원회이며, 여성 중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며, 임신중지를 찬성하는 여성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치활동위원회이다. 여성정치활동위원회는 20~30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에밀리즈 리스트는 정치자금을 가장 많이 모으는 위원회 중 하나이다.

13) 정치행동위원회는 194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조직(CIO: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을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제도화된 것은 1970년대이다. 1971년에 ‘연방선거캠페인법(FECA: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과 ‘연방세입법(FRA: Federal Revenue Act)’이 만들어졌는데 연방선거캠페인법에 의해 기업과 노조의 직접적인 정치자금 기여가 금지되고, 정치행동위원회 결성을 통해서만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백창재, 2004: 21).

14) 정치활동위원회는 크게 독립분리기금(SSFs: Separate Segregated Funds)과 비연계위원회(Nonconnected Committees)로 나뉘며, 비연계위원회는 다시 슈퍼팩(Super PACs), 하이브리드팩(Hybrid PACs), 리더십팩(Leadership PACs), 파트너십팩(Partnership PACs)으로 구분된다(FEC, 2024).



※ 출처: OpenSecrets(2024b)

〈그림 1〉 에밀리즈 리스트의 모금과 지출: 1990~2024

에밀리즈 리스트가 모금하는 후원금은 등락이 존재한다. 2020년에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선거에서는 다소 하락했다(〈그림 1〉 참조). 2018년에 후원금이 직전 선거 때보다 1.5배 정도 증가했다. 이때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첫 중간선거로 트럼프 당선에 화났던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던 시기였고,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지원한 여성후보도 가장 많았다(〈표 1〉 참조). 2020년에는 에밀리즈 리스트 역사상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았는데 이때는 대선이 있던 시기로 트럼프 정권이 연장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였고, 여성의 정치참여 흐름도 지속되었다.

‘OpenSecret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에밀리즈 리스트가 기부한 연방 상·하원 여성후보 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04년과 2010년, 2022년에 직전 선거 때보다 상대적으로 지지/지원하는 하원 후보 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은 유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원 후보 수는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후보가 증가할수록 후원 총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금액을 후원하고 있지는 않다.

〈표 1〉 에밀리즈 리스트가 후원한 연방 상·하원 후보자 수와 기부 총액
(금액 기준: 달러)

	하원		상원		합계	
	후보 수	후원 총액	후보 수	후원 총액	후보 수	후원 총액
2000	39	219,096	3	14,650	42	233,746
2002	29	163,386	7	39,010	36	202,396
2004	16	78,067	7	37,309	23	115,376
2006	33	206,972	2	11,065	35	218,037
2008	40	213,923	4	22,823	44	236,746
2010	31	151,532	9	15,252	40	166,784
2012	44	218,980	13	50,000	57	268,980
2014	42	271,007	9	45,594	51	316,601
2016	43	312,500	10	83,275	53	395,775
2018	85	642,700	11	95,000	96	737,700
2020	74	564,500	6	55,000	80	619,500
2022	55	405,000	9	70,025	64	475,025
2024	57	366,000	10	72,500	67	438,500

※ 출처: OpenSecrets(2024b)
 ※ 각주: OpenSecret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에밀리즈 리스트가 모은 후원금이 어느 항목에 어느 규모로 지출되는지를 요약한 것이 〈표 2〉이다. 후원(contributions), 급여(salaries), 모금(fundraising), 행정(administrative), 전략과 연구(strategy & research), 캠페인(campaign), 미디어(media), (정당이나 위원회로) 이전(transfers), 기타(unclassifiable)로 구분해 살펴보면(OpenSecrets, 2024b), 년도별로 비중이 달라지기는 하나 후보에 대한 후원과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에는 후원보다 급여 비중이 더 높고, 2008년까지 ‘기타’ 항목 지출 규모가 30%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 2008년, 2010년, 2012년에는 후원

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2014년부터는 급여 지출 액수와 비중이 가장 높다. 이는 에밀리즈 리스트 조직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에밀리즈 리스트 후원금 지출 내역: 2002~2022

(단위: 천 달러)

구분	후원	급여	모금	행정	전략과 연구	캠페인	미디어	이전	기타	
2002	금액	1,046	1,734	1,181	1,157	629	367	1,130	480	3,942
	비율	9.0	14.9	10.1	9.9	5.4	3.1	9.7	4.1	33.8
2004	금액	5,968	3,372	2,009	2,456	1,171	602	19	475	5,992
	비율	27.0	15.3	9.1	11.1	5.3	2.7	0.1	2.2	27.2
2006	금액	1,657	1,690	1,389	2,011	1,544	1,300	205	30	4,699
	비율	11.4	11.6	9.6	13.8	10.6	8.9	0.2	1.4	32.3
2008	금액	7,031	105	1,214	1,189	942	1,635	63	184	5,130
	비율	40.2	0.6	6.9	6.8	5.4	9.3	0.4	1.1	29.3
2010	금액	6,544	5,124	831	2,402	669	2,138	66	113	3,884
	비율	30.1	23.5	3.8	11.0	3.1	9.8	0.3	0.5	17.8
2012	금액	10,679	9,033	5,795	5,302	1,077	1,370	718	3,024	441
	비율	28.5	24.1	15.5	14.2	2.9	3.7	1.9	8.1	1.2
2014	금액	10,024	12,682	3,914	5,637	856	2,311	1,703	2,941	4,564
	비율	22.5	28.4	8.8	12.6	1.9	5.2	3.8	6.6	10.2
2016	금액	11,388	15,440	3,347	6,188	589	2,418	626	1,691	8,269
	비율	22.8	30.9	6.7	12.4	1.2	4.8	1.3	3.4	16.6
2018	금액	18,547	20,253	6,066	7,386	1,626	2,217	1,544	12,817	9,224
	비율	23.3	25.4	7.6	9.3	2.0	2.8	1.9	16.1	11.6
2020	금액	18,467	24,768	6,614	7,512	2,266	2,682	1,047	15,028	9,716
	비율	21.0	28.1	7.5	8.5	2.6	3.0	1.2	17.1	11.0
2022	금액	12,403	28,253	7,154	6,923	1,562	1,125	682	133	12,402
	비율	17.6	40.0	10.1	9.8	2.2	1.6	1.0	0.2	17.6
2024	금액	8,938	24,937	3,361	7,058	2,388	934	938	48	9
	비율	15.4	43.1	5.8	12.2	4.1	1.6	1.6	0.1	16.1

※ 출처: OpenSecrets(2024b)

※ 각주: OpenSecret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4) 성과: 수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에밀리즈 리스트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약 1,800명의 민주당 임신중지 찬성 여성후보를 당선시켰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당선자는 부통령 1명, 주지사 20명, 상원 29명, 하원 192명이며, 주 의회와 지방정부 당선자는 1,600명 이상이다(EMILYs List, 2024a).

1992년 미국 선거(102대 의회)는 의회 역사상 여성의원이가장 많이 당선됐다는 의미로 ‘여성의 해(Year of the Woman)’로 불렸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살펴보면, 이때 당선된 여성 의원은 총 535명(상원: 100명, 하원 435명) 중 33명(하원 29명, 상원 4명)이며, 비율은 고작 6.17%였다. ‘여성의 해’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남성독점(male dominance) 체제였다. 그리고 하원 여성 당선자 중 20명(60.6%)이 민주당이었다는 점에서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 여성의 해’였다고 할 수 있다(Gedye, 2020). 이때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와 후원을 받았던 패티 머레이(Patty Murray, 워싱턴주)는 지금도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다이앤 파인스테인(Dianne Feinstein, 캘리포니아주)도 사망하기 전인 2023년까지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다.

2002년 선거에서 에밀리즈 리스트는 세 명의 여성 주지사와 세 명의 유색인종 하원 여성 의원을 당선시켰고, 현직 의원들도 재선에 성공했다. 1987년부터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으로 활동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는 에밀리즈 리스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여성의원 중 한 명이다. 2003년에 첫 여성 야당 원내대표가 되어 2007년까지 직을 수행했고, 이후 2011년부터 2019년까지도 야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했다. 2007년에는 첫 여성 하원의장이 되었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두 번 하원의장직을 수행했다(Britannica, 2023).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온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전 부통령도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2015년 에밀리즈 리스트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해리스는 “선거에

나온 여성들은, 여성은 정치를 할 수 없고, 정치는 너무 힘들고, 아직 여성이 할 시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에밀리즈 리스트는 여성후보가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해 왔”고 그것이 에밀리즈 리스트의 유산(legacy)이라고 밝혔다(EMILYs List, 2015). 당시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의 지방검사(district of attorney)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을 거쳐 2016년 상원 도전을 시사한 상태였는데 1992년 캘리포니아의 한 호텔에서 에밀리즈 리스트의 창립을 지지하는 두 명의 여성의원, 바바라 박서(Barbara Boxer)와 다이앤 파인스테인을 봤고, 그 장면을 보면서 미국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랬던 그녀가 첫 여성 부통령이 되었고, 두 번째 민주당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2016년 대선에서 에밀리즈 리스트는 미국 거대정당인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여성후보가 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회원이 약 5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EMILYs List, 2024a).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2018년 선거 때는 에밀리즈 리스트에 대한 후원금이 1.5배 정도 증가했고, 에밀리즈 리스트도 역사상 가장 많은 96명의 상원·하원 여성후보를 지지·지원했다(〈그림 1〉과 〈표 1〉 참조). 2018년 6월 5일, 8개 주에서 진행된 가장 큰 예비경선(primary)에서 에밀리즈 리스트가 승인한 48명의 후보 중 42명이 승리했고 이들 후보 중 34명이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다(Ball, 2018: 32). 이 중에서 24명의 당선자가 나온 주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수당이 변경된 지역으로 이들 덕분에 민주당은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선거에서 47명의 유색인종 여성이 당선됐는데 그 중 46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Gedye, 2020: 7). 주와 지역 수준에서는 300명 이상 여성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EMILYs List, 2024a).

2022년 선거에서 에밀리즈 리스트는 489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지원했다. 이들 후보 중 상원 4명, 하원 36명, 주지사 8명, 주의회와 지방의회 353명, 시장 15명, 주 차원의 법무장관이나 국무장관 28명 등이 당선 또는 재

선에 성공했다(EMILYs List, 2024a). 최근 선거인 2024년 선거에서는 약 200명의 여성후보를 지원했는데 2022년과 비교해 급격히 줄었다. 그럼에도 에밀리스 리스트가 지원한 상원 현직 여성의원 7명이 모두 재선에 성공했고, 3명이 새롭게 상원의원이 되었다. 하원에서는 33명이 새로 당선되거나 재선에 성공했다(EMILYs List, 2024a).

2022년 의회 선거에서 하원 여성의원 비율은 29%(440명 중 128명), 상원은 25%(100명 중 25명)이다. 100년 동안 여성의원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를 이끈 것은 민주당 여성의원이다(Leppert and Desilver, 2023). 한국이나 멕시코와 같이 법적 성별할당제도 없고, 정당 내 성별할당제도 없는 미국 정치에서 에밀리스 리스트와 같은 조직이 없었다면, 여성이 후보로 나서고 선거에서 승리하고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

에밀리스 리스트가 지지/지원한 여성 당선자가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은 임신중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이다.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임신중지권은 보편적인 권리로 여겨졌고, 그것을 후보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둔 에밀리스 리스트의 원칙은 한때 구시대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과 집권, 그리고 연방대법원을 통한 보편적인 임신중지권의 박탈은 에밀리스 리스트가 40년 동안 지켜온 임신중지권 찬성 원칙이 취약한 동시에 강력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여성이라는 성별을 강조하지 않았으나 임신중지권 보장을 강력하게 외치는 모습은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이 실질적 대표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지지와 후원에 있어 정치적·정책적 지향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에밀리스 리스트의 지지와 후원을 받은 여성의원실의 실질적 대표성과 관련한 비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은 에밀리스 리스트의 후원과 지지를 받았지만 임신중지권에 대해 후퇴하는 입장

을 보이기도 했고, 2004년 주지사 선거에서 킹카운티 행정부 출신의 론 심스(Ron Sims)를 낙마시키기 위해 중도 후보인 크리스틴 그레고리(Christine Gregorie)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다(Conniff, 2005: 18-19).

3. 에밀리즈 리스트의 성공과 지속 요인

1) 리더십

에밀리즈 리스트의 설립과 성장에 있어 엘렌 말콤의 헌신과 리더십은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말콤은 에밀리즈 리스트의 단순한 창시자 중 한 명이 아닌, 초기부터 약 25년 동안 에밀리즈 리스트를 이끈 핵심인물이다. 말콤 없는 에밀리즈 리스트는 상상하기 어렵다.

말콤은 정부 감시 시민단체인 커먼코즈(Common Cause)에서 조직가로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전국여성정치회의(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에서 언론담당 비서로 활동했다. 그리고 1980년에 지미 카터 행정부의 소비자 문제와 관련한 특별조직의 공보비서관으로 일했다. 에밀리즈 리스트를 만들기 전에 이미 베테랑 활동가이자 자금 모금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¹⁵⁾

200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말콤이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페인의 공동의장을 맡은 것은 이미 자금모금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엘렌은 가장 영향력 있는 기금모금자이자 조언자”라며 “나는 그녀가 만든 기록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 평가했다(EMILYs List, 2024b).

15) 2003년에 말콤은 유권자들을 세력화하고 조직화하는 전국조직인 ACT(America Coming Together) 창립에 참여했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 대표로 활동했는데 이때 약 1억 4,500만 달러를 모금했다(EMILYs List, 2024b).

말콤의 자금 모금 능력뿐 아니라 조직에 대한 헌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콤은 25년 동안 그냥 대표를 맡은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했다. 에밀리스 리스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영향력도 갖게 되었을 때 직접 출마를 해볼 수도 있고, 출마를 권유받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금까지 말콤은 한 번도 출마한 적이 없다. 에밀리스 리스트의 대표 자리가 공천을 받기 위해 거쳐 가는 자리였다면, 에밀리스 리스트는 성장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수 있다. 한 눈팔지 않았고 특히 어려운 시기에 대표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말콤의 리더십이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 테사 스투어트(Tessa Stuart)는 “(죽었든 살았든) 어느 누구도 말콤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여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평했다(Stuart, 2025).

2) 명확한 당파성과 강력한 정체성

에밀리스 리스트 이전에 전미여성기구(NOW: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전미여성정치위원회(NWPC: 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 여성선거운동기금(WCF: Women's Campaign Fund)과 같은 여성단체들은 성평등헌법수정안(ERA: Equal Right Amendment)에 찬성하는 여성후보를 정당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위원회를 운영했다(Cooperman, 2010: 2). 그런데 1970년대에 38개 주 중에서 3개 주를 통과하지 못해 성평등헌법수정안은 수정헌법(amendment)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리고 1984년에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부통령 후보로 여성인 제랄딘 페라로(Geraldine Anne Ferraro)를 지명했으나 첫 여성 부통령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기존 여성조직이 쇠락하는 것을 보면서 말콤은 여성조직이 초당파적(bipartisan)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판단했고, 당파적인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 1980년에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1970년대 여

성운동이 여성과 아이를 위해 했던 많은 일들이 후퇴하는 것을 보면서 당파성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Malcolm, 2007). 당파성을 강조한 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당성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민주당과 여성의원도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기대하는 상황이 되었다. 에밀리즈 리스트는 자금을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당파성이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Gaunder, 2011: 84).

말콤은 여성이 남성보다 선거운동에 덜 기부한다는 제약을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극복했다고 말해진다. 필모트(Pilmott)는 “말콤은 에밀리즈 리스트와 여성운동을 연결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를 활용했다”(Pilmott, 2010: 149; Gaunder, 2011: 92에서 재인용)고 평가했는데 특정 유형의 정체성 정치란 임신중지를 찬성하는 민주당 여성의원만을 지지·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가운더(Gaunder, 2011)는 이것이 혁신적이고, 에밀리즈 리스트의 기반이며, 성공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호그랜드(Hoagland, 2011) 또한 정체성 형성(identity building)이 에밀리즈 리스트가 후원자를 모집하고 후원을 끌어내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에밀리즈 리스트가 보내는 후원 메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치/정치 성향(politics/political ideology)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을 공격하는 내용과 함께 임신중지와 진보적 등과 같은 단어를 주로 쓰고, 젠더/부정의(gender/unjustice)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권리, 여성 관점, 사회적 정의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전술(tactics)과 관련해서는 에밀리즈 리스트에 직접 기부, 빠른 성공, 후보 홍보, 성공한 여성, 감사한 지지자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agland, 2011). 호그랜드는 이러한 언어를 통해 에밀리 리스트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믿음과 목표를 기부자들에게 환기시키고, 에밀리즈 리스트와 기부자들이 같은 집단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개인 기부자들이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더 큰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연대 형성(solidarity building)’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Hoagland, 2011: 15).

3)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선택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하는 후보의 기본 조건은 민주당 소속의 임신 중지 찬성 여성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말콤에 따르면, 에밀리즈 리스트 설립 초기에 그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즉 당선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후보”(Malcolm, 2007)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하나는 에밀리즈 리스트를 지지할 여성들은 정치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은 당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늙은 남성(정치인)들의 불신과 편견을 깨야 했기 때문이다(Malcolm, 2007).

에밀리즈 리스트가 민주당의 여성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에 다수가 동의한다. 그럼에도 한나간과 동료들은 에밀리즈 리스트가 여성 후보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후보가 당선된 것인지, 이미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였기 때문에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를 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성향점수매칭모델(propensity score-matching model)’을 활용해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와 선거 승리 간 인과성을 검토했다(Hannagan, Pimlott, and Littvay, 2010). 분석결과,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낮은 그룹에 있는 여성이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받을 경우, 당선 가능성이 18% 정도 증가하고, 투표율 또한 1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며,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확실한 후보들의 경우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annagan, Pimlott, and Littvay, 2010: 507). 결론적으로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가 모든 여성후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페미니스트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반대세력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며, 아

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는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Hannagan, Pimlott, and Littvay, 2010: 507-508).

에밀리즈 리스트는 여성후보 선정을 위해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후보자의 캠페인 계획과 선거자금 계획,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개인 면담뿐 아니라 전국 또는 지역의 정치네트워크 조직과의 상의 등을 통해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할 후보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미국 정치가 기본적으로 후보 중심(candidate-centered)이며, 자금의 영향력이 큰 정치환경이기 때문에 에밀리즈 리스트 또한 후보가 자금을 모을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주요하게 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에밀리즈 리스트가 선택했기 때문에 당선됐다기보다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에밀리즈 리스트가 선택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예외 사례들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에밀리즈 리스트의 에밀리가 “초기 자금은 이스트와 같고, 그것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게 한다”는 의미에서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와 후원은 ‘초기 자금’으로 더 많은 자금을 모으는 기반이 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노동조합들은 민주당의 후보 공천이나 의제 설정에 깊숙이 관여해 왔으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노동조합 구성원의 인구학적 구성에 있어 여성과 유색인종의 비율이 증가하고, 서비스종사자국제연맹(SEIU: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대표였던 존 스위니(John Sweeney)가 1995년에 미국노동연맹(AFL: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의장이 되면서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의 정치활동위원회인 AFL-CIO COPE(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¹⁶⁾가

16) AFL은 1886년에 새뮤얼 고펜스(Samuel Gompers)가 설립한 노동조합으로 약 50년 동안 미국 노동운동을 이끌었다. AFL에서 분리됐던 CIO와 1955년에 합병해 AFL-CIO로 재편했다. 현재 AFL-CIO는 60개의 국내·국제 노동조합 연합체로 약 1,20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전보다 진보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다(Cooperman, 2010: 8). 노동조합의 이러한 변화가 노동조합과 여성정치활동위원회(women's PACs) 간 협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쿠퍼만은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받은 여성후보가 AFL-CIO COPE로부터도 후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Cooperman, 2010).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의 선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는 여성후보가 AFL-CIO COPE로부터 후원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 여성후보의 당선에 있어 에밀리즈 리스트의 독자적 활동이 중요하기보다는 AFL-CIO COPE와 같은 다른 조직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민주당 내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조직이 문지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Cooperman, 2010: 17).

4) 번들링(bundling): 티끌 모아 태산

여성이 출마를 결심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 자금을 포함한 경제적 불평등은 출마 결심을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김원홍·이수연·김민정·전선영, 2013; 김은주·박진경·권병진, 2017; McGregor, 2014; Nelson, 2000; Noveck, 2010). 그래서 말콤은 에밀리즈 리스트가 추천하는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후원자 네트워크(donor network)를 만들려고 했고, 이를 위해 번들링(bundling)이라는 모금방식을 활용했다.

번들링은 개인의 작은 기부를 모아 하나의 큰 기부로 합치는 것으로 합법적인 방식이다. 예를 들어 로비스트가 특정 사업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나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으고, 그렇게 모은 기부금을 한 번에 후보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 유용한 자금 모금 방식으로 인지도는 2000년 선거 때부터이고, 급격히 확산된 것은 2010년대이다(Ballotpedia, 2022). 따라서 번들링은 에밀리즈 리스트가 선도적으로

활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정치활동위원회가 한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데 에밀리즈 리스트는 번들링이라는 방식을 통해 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에밀리즈 리스트의 후보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이는 에밀리즈 리스트의 회원을 늘리고, 후보에 대한 에밀리즈 리스트의 영향력을 높이며, 에밀리즈 리스트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년 후에 선거 때마다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평균 93달러의 수표를 쓰는 회원이 10만 명 이상이 되었다(Conniff, 2005: 16).

기부를 조직화하는 데 있어 기부방식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호글랜드(Hoagland, 2011)는 집단행동 프레임(collective action frames)¹⁷⁾을 적용해 에밀리즈 리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기부자와 기부금을 모으는지를 분석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에밀리즈 리스트는 자신들의 선거나 후원에서의 승리 사례들을 강조하면서(잠재적) 기부자들에게 이기는 팀의 일원이 될 것을 요청하는 방식, 즉 변화를 위한 동반자(exchange partner)가 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부라는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처방적 프레임링을 활용하고 있다(Hoagland, 2011: 7-11). 동시에 부정의 프레임(injustice frame)도 사용하는데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underrepresentation)은 부정의의 결과이며,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부정의 프레임은 적이나 억압자를 상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눈에 보이는 적으로 공화당을 공격하기도 한다(Hoagland, 2011: 12).

17) 벤포드와 스노우(Benford and Snow, 2000)에 따르면, 집단행동 프레임은 “사회운동 실천들과 캠페인들을 고무하고 정당화, 행동 지향적인 일련의 신념들과 의미들”이다. 이들은 집단행동 프레임을 세 가지로 유형화했는데 첫째는 진단 프레임(diagnostic framing)으로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처방적 프레임(prognostic framing)으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동기적 프레임(motivational framing)으로 집단행동을 통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4. 한국의 젠더정치와 여성운동에 주는 함의

민주당 여성후보를 지원하는 정치활동위원회에는 에밀리스 리스트만 있지 않다.¹⁸⁾ 그럼에도 에밀리스 리스트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많은 후원금을 모으고, 여성후보를 지원하며, 정당(민주당)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정치활동위원회는 에밀리스 리스트가 독보적이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에밀리스 리스트를 모델로 삼아 유사한 시도를 한 이유이다.

일본에서도 에밀리스 리스트를 벤치마킹해 1999년에 6명의 여성이 일본 전국선거(중의원과 참의원)에 출마한 여성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조직, 윈윈(WIN WIN: Women in the New World, International Network)을 만들었다. 초기에는 성공적인 듯했으나 결국에는 실패한 시도가 되었는데 실패의 원인으로 가운데는 조직 지도부가 후원할 여성후보를 선정하는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했을 뿐 아니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고, 후원을 한 구성원들과 소통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책임성과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Gaunder, 2011). 또한 여성후보 지원을 정당이나 정책과 연결시키지 못함으로써 후원을 받은 여성의원이 윈윈과 계속 소통하거나 윈윈으로부터 후원을 계속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윈윈 또한 여성의원들에게 정책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Gaunder, 2011).

호주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는데 호주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18) 민주당 여성후보를 지지하는 정치활동위원회로 Women's Political Cmte, Tri-State Maxed Out Women, Los Angeles Women's Giving Collective, Vote Mama 등이 있다. 에밀리스 리스트와 같이 임신중단을 찬성하는 공화당 여성후보를 지지하는 정치활동위원회로 위시 리스트(WISH List)가 있었다. 반대로 임신중단을 반대하는 여성 정치활동위원회로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인 수잔 앤서니 이름을 딴 수잔 앤서니 리스트(Susan B. Anthony List) 등이 있다. 최근 공화당 여성후보를 지지하는 정치활동위원회 중 상대적으로 후보에게 기부하는 금액이 많은 위원회로는 Value in Electing Women PAC, Maggie's List, Winning for Women 등이 있다.

여성들은 1996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집권에 실패하고, 여성의원 비율도 13%에서 8%로 떨어지고, 보수 정권의 반페미니즘 백래시가 시도되자 ‘여성이 여성을 지지할 때 여성이 승리한다(When women support women, women win)’는 구호를 내건 호주판 에밀리즈 리스트를 만들었다(Sawer, 2006: 103~106). 노동당의 하위조직이 아닌 독자적인 조직임을 천명하며, 노동당 여성의원 선출과 임신중지에 대한 찬성을 포함한 젠더의제 강화를 목표로 회원을 모집했다. 약 2,000명의 회원을 모았고, 2004년 4월 선거에서 호주 에밀리즈 리스트가 지지한 여성 중 23명이 당선됐다. 이는 노동당 여성의원의 71%에 해당했고, 노동당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35%, 의회 전체는 30%를 달성했다(Sawer, 2006: 107). 호주 에밀리즈 리스트의 지지를 받았던 노동당 여성의원들은 젠더의제를 대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당내 정치구조의 한계를 넘기는 쉽지 않았다. 여성의원들은 당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들에 대항해 싸워야 했고, 포퓰리스트들의 부상과 의원들에 대한 당파적 충성심의 요구에 대해서도 싸워야 했다. 호주 에밀리즈 리스트는 자신이 지지한 여성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선출된 여성들이 적극성을 띠게 할 만큼 충분하지는 못했다(Summers, 2003: 214-215; Sawer, 2006: 116에서 재인용).

한국에서 진행된 ‘맑은넷’은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쉽지 않다. 당시 ‘맑은넷’ 활동이 진행되던 시점에 페미니스트 언론인 〈일다〉의 조이여울 편집장은 ‘맑은넷’의 정치세력화 방식을 가장 앞장서 비판했다. 요점은 기준도 없이 다수의 여성을 국회에 진출시키려고만 한다는 점 그리고 여성운동 단체장 출신의 정계 진출은 여성운동의 비판성과 권력감시 기능을 떨어뜨리고 운동의 순수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운동단체의 조직력과 활동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었다(오장미경, 2004). 예상한 우려 중 일부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고, 지금은 그때보다 한국정치가 더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초당파적인 ‘맑은넷’ 활동은 다시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에밀리스 리스트와 같이 당파성을 밝히는 조직을 만들면, 여성대표성 확대와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질까?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난관은 한국에서는 당파성을 가진 시민/정치조직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영리민간단체법> 2조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해 당파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¹⁹⁾ 따라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당파성을 가진 여성 정치인 육성과 지원 조직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한국식 에밀리스 리스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공임신중절권과 같은 젠더의제 중심으로 여성/페미니스트 정치인을 육성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유사한 조직으로 39세 이하 청년 정치인(‘젊치인’으로 명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 개발과 유권자 기반을 확장하는 플랫폼인 뉴웨이즈(NEWWAYS)가 있다.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청년들에게 정치인 교육을 제공하고, 선거에 나가려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원이 된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청년 정치인의 수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여성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어떤’ 여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한국의 여성대표성 운동이 여성의원 수는 늘었으나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는 여성의원이 없는 상태를 마주하고 있듯이 지향이 분명하지 않은 청년 대표성 또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19) 2000년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전개한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검찰은 총선연대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29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이사철·함종한·김중위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총 4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일부 지도부는 이사철 전 의원에 의하여 급여까지 가압류되었다(김기현, 2003).

에밀리즈 리스트는 여성의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인공임신중절권이라는 젠더의제를 대표하는 여성을 의회에 보내고자 했다. 물론, 인공임신중절권이라는 단 하나의 젠더의제만을 표방했기 때문에 젠더의제가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Vaida and Skalka, 2008). 그러나 트럼프 정부 집권으로 인공임신중절권이 폐지되면서 이 의제가 결코 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고,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서 (특히 대졸 백인/유색)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가르는 중요한 의제가 됐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페미니스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파성보다는 젠더의제의 확장과 성평등 실현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강간의 기준을 동의로 바꾸거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성평등 지향을 갖는 젠더의제를 대표할 수 있는 여성을 교육·훈련하고 대표가 되도록 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단,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질 때 중요한 것은 한눈팔지 않는 리더의 존재이다. 정당 내 여성조직이 존재해도 그 조직이 성장하고 영향력을 갖지 못한 데는 여성조직의 대표 자리가 개인의 정치경력을 쌓거나 공천을 받기 위해 거치는 자리 이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운동을 하다 정치인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를 자신의 정치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은 여성단체와 여성운동, 여성대표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밀리즈 리스트가 민주당에 영향력을 갖게 된 데는 말콤이라는 리더가 자신의 역할, 즉 여성 정치인의 발굴과 육성, 당선에만 집중했고 충실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성별할당제 법제화 운동은 동력을 거의 상실했다. 30% 여성할당제에서 동수(parity)로 담론이 변화했고, 이를 대표발의한 여성의원도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정치에서도 여성운동에서도 진행되지 않았다.²⁰⁾ 젠더의제가 정치에서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

20) 2019년 1월,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후보 중 여성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동수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

는 현실에 분노해 한 달 만에 창당된 여성의당은 기대만큼의 활동이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현재는 정당으로서의 존재감도 거의 느낄 수 없는 상태이다. 여성의 대표성과 정치세력화가 중요하다고 하나 이를 일상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는 조직이나 사람은 정당에도 여성운동에도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영향력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적절한 여성의원 비율이 몇 %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이상 남성은 25~35%, 30대 이상 여성은 30~40%, 20대 남성은 15~30% 사이에 응답이 몰려 있는 반면, 20대 여성은 압도적으로 50%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옥 외, 2020: 146). 2016~2017년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여성들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맞서 광장에 안전한 ‘페미존(feminist zone)’을 만들고, 집회에서의 여성혐오 발언을 제지하고 금지했으며, 범페미니스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정체세력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갔다(이진옥, 2017: 114-115). 2024~2025년 윤석열 탄핵과정에서도 2030 여성청년은 정치적 주체로 광장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여성/청년과 페미니스트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페미니스트 정치에 대한 요구가 가시화된 지 오래되었으나 정당과 여성운동 어디에서도 이들의 요구와 욕구를 정치적으로 대표하지도 세력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에밀리즈 리스트는 여성대표성과 여성/페미니스트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지만 에밀리즈 리스트의 사례가 소강상태에 빠진 한국 여성의 정치세력화 논의에 조금이라도 자극이나 계기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빅카인즈를 통해 ‘박영선’과 ‘남녀동수법’을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한 결과, 박영선 의원 인터뷰 2건(중앙일보, 조선일보)이 전부이다. 여성단체 차원에서는 토론회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정도였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권수현 · 황아란. 2017. “여성의 당선경쟁력과 정당공천.” 『한국정치학회보』 51(2): 69-92.

김원홍 · 이수연 · 김민정 · 전선영. 2013. “19대 총선 지역구 공천과정 분석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모색.” 『현대정치연구』 6(1): 31-52.

김은경. 2010. “여성대표성 확보의 기제로서 할당제 효과: 16, 17대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활동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30: 101-136.

김은주 · 박진경 · 권병진. 2017.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의정. (미간행).

박이은경. 2004. “여성운동계의 갈등은 필연인가 위기인가.” 『여성과 사회』 15: 302-318.

백창재. 2004. “미국 정치자금 제도개혁의 동향.” 『국제 · 지역연구』 13(2): 19-50.

오장미경. 2004. “여성의 정치세력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택은 무엇인가?” 『여성과 사회』 15: 257-274.

이진옥. 2017. “대전과 젠더 정치: 18대 대선과 19대 대선의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7(2): 95-137.

이진옥 · 권수현 · 서복경 · 장명선. 2020.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이진옥 · 황아란 · 권수현. 2017.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의 효과와 한계.” 『한국여성학』 33(4): 209-246.

최재동. 2022. “2020년 미국 하원선거 선거자금 분석: 개인후원금과 후보자 이념강도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16: 39-61.

푸워, 너털. 2017. 『공간 침입자』. 김미덕(역). 서울: 현실문화.

(2) 국외문헌

Benford, Robert D. and David A. Snow. 2000.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611-639.

Cooperman, Rosalyn. 2010. “EMILY’s Friends: the Emerging Relationship between EMILY’s List, Organized Labor, and Women Candidates in U.S. House Elections, 2002-2008.” Presented at the 2010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641791 [검색일: 2022.6.4.].

- Day, Christine L. and Charles D. Hadley. 2002. "Who Contribut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ntributors to Emily's List and WISH List." *Women & Politics* 24(2): 53-67.
- Gaunder, Alisa. 2011. "WIN WIN's Struggles with the Institutional Transfer of the EMILY's List Model to Japan: The Role of Accountability and Policy."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2(1): 75-94.
- Hannagan, Rebecca J., Jamie P. Pimlott, and Levente Littvay. 2010. "Does an EMILY's List Endorsement Predict Electoral Success, or Does EMILY Pick the Winners?"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43(3): 503-508.
- Hoagland, Emily. 2011. "Power and PAC Donations: A Comparison of the Fundraising Solicitations of EMILY's List and the Susan B. Anthony List."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11 Annual Meeting. <https://research.ebsco.com/c/zo3ys6/search/details/kh3nx37dkj?db=edc> [검색일: 2022.6.4.].
- Malcolm, Ellen R. and Craig Unger. 2017. *When Women Win: MILY's List and the Rise of Women in American Politics*.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 Nelson, Justin A. 2000. "The Supply and Demand of Campaign Finance Reform." *Columbia Law Review* 100(2): 524-557.
- Noveck, Scott M. 2010. "Campaign Disclosure and the Legislative Process." *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 47: 75-114.
- Sawer, Marian. 2006. "When Women Support Women ... EMILY's List and the Substantive Representation of Women in Australia." In Marian Sawer, Manon Tremblay, Linda Trimble(eds), *Representing Women in Parliament*. London: Routledge. 103-119.

(3) 신문기사 · 잡지

- 김기현. 2003. "시민단체 정치참여 法장벽 낮춰라." <경향신문> 2003.9.9.
<https://www.khan.co.kr/article/200309091644141> [검색일: 2025.2.21.].
- 김혜림. 2004. "한시지구 '맑은정치여성기금' 출범." <국민일보> 2004.2.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0148355?sid=103>
[검색일: 2023.5.17.].
- 동아일보. 2004.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 당선운동 대상 여성후보 102명 발표." <동아일보> 2004.1.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40108/8018584/1>

- [검색일: 2023.5.19.].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2003.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성평등
이카이브 <http://moa.seoulwomen.or.kr/items/show/25641> [검색일: 2023.5.19.].
- 안희 · 이윤영. 2003. “총선 대비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발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499034?sid=102>
[검색일: 2023.5.17.].
- 유혜영. 2016. “미국 선거는 돈으로 말한다.” <시사인> 477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55>
[검색일: 2025.4.16.].
- Ball, Molly. 2018. “The Women Are Winning.” *Time*, 25 June, 2018. 30-33.
- Ballotpedia. 2022. “Bundling.” <https://ballotpedia.org/Bundling>
[검색일: 2025.2.19.].
- Britannica. 2023. “Nancy Pelosi.”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Nancy-Pelosi>
[검색일: 2025.2.19.].
- Conniff, Ruth. 2005. “Spreading the Dough.” *The Nation*, 31 October, 2005. 16-19.
- EMILYs List. 2024a. “Our History: Changing the Face of Power since 1985.”
<https://emilyslist.org/about/> [검색일: 2025.2.21.].
- _____. 2024b. “Our Leadership.” <https://emilyslist.org/our-leadership/>
[검색일: 2025.2.21.]
- _____. 2024c. “Anti-racism,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Are Key Goals at
EMILYs List.” <https://emilyslist.org/anti-racism-diversity-equity-inclusion/>
[검색일: 2025.2.21.]
- _____. 2015. “Kamala Harris Speaks at EMILY’s List 30th Anniversary.” 2015.3.5.
<https://youtu.be/d2aAF8FuGN8?si=TMp1Zik7FMqH6UGt> [검색일: 2025.2.19.].
- FEC. 2024. “Political Action Committees (PACs).”
<https://www.fec.gov/press/resources-journalists/political-action-committees-pacs/>
[검색일: 2025.2.21.].
- Gedye, Grace. 2020. “Why Can’t Republicans Elect Women?” *Washington Monthly*,
6 July, 2020. <https://washingtonmonthly.com/2020/07/06/why-cant-republicans-elect-women/> [검색일: 2022.6.4.].
- Leppert, Rebecca and Drew Desilver. 2023. “118th Congress Has a Record Number of
Women.” *Pew Research Center* <https://pewrsr.ch/3Cn6NwH> [검색일: 2025.2.21.].

- Levac, Leah. 2018. "How to Ensure More Women Run for Public Office". *The Conversation*. 08 March, 2018. <https://theconversation.com/how-to-ensure-more-women-run-for-public-office-91636> [검색일: 2025.4.16.].
- Malcolm, Ellen R. 2007. "EMILY's List." *Talks at Google*.
<https://youtu.be/D5vWIC5Bf6I?si=cMfjllrhFMagkt9f> [검색일: 2025.2.19.].
- McGregor, J. 2014. "Why More Women Don't Run for Office". *The Washington Post*. 21 May, 2014.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on-leadership/wp/2014/05/21/why-more-women-dont-run-for-office/> [검색일: 2025.2.19.].
- OpenSecrets. 2024A. "What Is a PAC?"
<https://www.opensecrets.org/political-action-committees-pacs/what-is-a-pac>
[검색일: 2024.2.19.].
- _____. 2024b. "PAC Profile: EMILY's List." <https://www.opensecrets.org/political-action-committees-pacs/laura-friedman-for-congress/C00193433/summary/2024> [검색일: 2024.2.19.].
- Stolberg, Sheryl Gay. 2018. "Touch Choices, and Criticism, for Emily's List as Democratic Women Flood Primaries." *New York Times*. 4 May, 2018.
<https://www.nytimes.com/2018/05/04/us/politics/emilys-list-midterm-elections.html>
[검색일: 2025.4.15.].
- Stuart, Tessa. 2025. "She Helped American Elect More Women. She Says We're Not Done Yet." *RollingStone*. 8 Feb, 2025. <https://www.rollingstone.com/politics/politics-features/ellen-malcolm-emilys-list-donald-trump-1235260413/> [검색일: 2025.2.21.].
- United States Senate homepage. 2023. "Barbara Mikulski: A Featured Biography." https://www.senate.gov/senators/FeaturedBios/Featured_Bio_Mikulski.htm
[검색일: 2023.6.4.].
- Vaida, Bara and Jennifer Skalka. 2008. "Can EMILY's List Get Its Mojo Back?" *National Journal*. 28 June, 2008. <https://web.archive.org/web/20150205222842/http://www.nationaljournal.com/magazine/can-emily-s-list-get-its-mojo-back-20080628> [검색일: 2025.4.16.].
- Wikipedia. 2025. "Laphonza Butler." https://en.wikipedia.org/wiki/Laphonza_Butler
[검색일: 2025.2.19.].

Abstract

EMILYs List and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Kwon, Soo Hyu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activities of the EMILYs List PAC, a prominent women's political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analyzes the factors contributing to its success and persistence while discussing the implications for the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in Korea. Founded in 1984, Emily's List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ncreasing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empowerment of women by supporting Democratic pro-choice candidates. The organization's success can be attributed to several key factors: the leadership of its long-time head, who has been at the helm for 25 years; its clear partisan alignment with the Democratic Party; a strong focus on pro-choice women candidates; the careful selection of candidates with a high likelihood of electoral success; and the effective use of a bundling fundraising method, which allows for small donations and establishes networks among contributors. However, applying the same strategies in Korea poses challenges due to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systems and culture between the two countries. Nonetheless, we can explore various approaches to strengthen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that ensure not only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but also substantive presentation in Korea. This includes establishing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rganizations aimed at nurturing women and feminists with a gender equality focus to become politicians.

Key words: EMILYs List, Leadership, Partisanship, Identity, Fundrais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Empowerment

178 미국의 에밀리즈 리스트(EMILYs List)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 투 고 일 : 2025년 2월 24일
- 최초심사일 : 2025년 4월 4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4월 25일